



▲ 한승수 국무총리 기념사



▲ 유공자에게 정부포상수여

## 세계 물의 날 기념식

# 지속가능한 물, 안전한 물 지켜갈 것

3월 22일 세계 물의 날을 맞아 다양한 행사가 개최됐다.

21일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환경부·국토해양부 공동주관으로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계 인사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이 개최됐다.

또한 세계 물의 날 전후로 학술세미나, 물 엑스포, 전시회 등 물 관련 행사를 개최하여 물의 소중함을 강조했다.

1992년 12월 유엔총회에서 날로 심각해지는 수자원 고갈 문제와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물의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매년 3월 22일을 『세계 물의 날』로 제정·선포(올해로 16회째)했다.

정부는 이번 기념식을 통해 국민들에게 물의 소중함을 다시금 일깨우고, 국가 성장동력 산업으로 물산업의 육성과 물 복지국가를 위하여 “지속가능한 물,

안전한 물”을 지켜갈 것을 다짐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김갑수 선임연구위원에게 국민훈장이 수여되었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윤석영 정책연구실장에게 국민포장이 수여되는 등 물 관리에 공이 큰 민간인 등 16명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됐다.

또한, 환경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 등은 특별히 3월 한 달을 세계 물의 날 행사기간으로 정하여 물과 관련된 각종 학술대회 및 전시회 등을 개최했으며 수도시설의 개방, 물 관련 UCC 공모전 등을 통하여 생활속에서의 물 사랑 실천을 유도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먹는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발전방향’에 관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다. ◀

(관련기사 8~9쪽)

# 전국 곳곳서 풍성한 행사

## 21세기 생명 물 '위생' 강조

금년도 UN이 정한 물의 날 행사의 주제는 위생이었다. 서울광장에서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주최로 3월 20일부터 22일까지 100년사 사진전, 먹는물 비교실험, 블라인드 테스트, 아리수의 벽 등 세계 물의 날 기념 아리수 행사를 개최했다.

“100년사 사진전”에서는 1908년 9월 1일 최초 수도물 공급 이후, 올해로 100주년을 맞게 된 서울시 수도물의 역사 변화를 한 눈에 볼 수 있었다.

“먹는물 비교실험”은 아리수와 생수, 정수기물의 수질에 대해 간단한 실험을 하고 그 결과를 즉석에서 확인하는 행사로, 막연하게 알고 있는 물에 대한 상식을 과학적으로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블라인드 테스트”에서는 시민고객들이 A, B, C라고만 표시한 세 종류의 물을 마시고 가장 맛있는 물에 대해 시민고객들이 한 표씩 투표하는 행사로 아리수와 생

수, 정수기물의 맛에 대해 아무런 편견 없이 평가할 수 있었다.

한편, 청계천에서는 Walk for Water 걷기 대회가 2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렸다. 이 대회는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한 행사로 작년의 경우 미국 69개 도시에 서 진행한 바 있다.

한편 2008년 물의 날 기념 거북이 가족 걷기 행사는 추진위 주최 운하백지화국민행동 주관으로 22일 물의 날을 맞아 ‘운하를 넘어 생명으로 강으로’ 라는 주제로 2008년 물의 날 기념 거북이 가족 걷기 행사를 개최했다.





### 세계 물의 날 유래

UN은 1992년 제47차 총회에서 세계 물의 날 준수(Observance of World Day for Water) 결의안을 채택했다.

점차 심각해지는 지구촌의 수자원의 고갈과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물의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리우환경회의 의제21의 18장(수자원의 질과 공급 보호)의 권고를 받아들였다.

이 결의안에 따라 매년 3월 22일을 '세계 물의 날'로 선포하여 1993년부터 기념하고 있다.

이전에도 UN은 1965년부터 국제 수자원관리 10개년 사업을 벌여 세계 수자원의 개발과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해결방안을 조사해 왔다.

'67년의 세계 물 평화회의, '72년의 UN 민간 환경회의, '77년 UN 수자원 회의를 개최하여 국제 음용수 공급 및 위생설비 보급 10개년 계획 실시 결정 등 세계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을 추진했다.